

부록

부록 1_설문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서울시민 기후변화 인식 및 정책수요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은 서울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시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서울연구원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과제의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기후변화 인식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서울시 기후변화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응답해 주신 정보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설문 및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관기관** :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 **조사기관** :  Research Research
Marketing Research - Public Opinion Poll and Consulting - ISO 9001 Certified Company - Established in 1987

◆ **문의처** : 서울연구원 백종락 연구원 (☎ 02-2149-1436)
(주)리서치앤리서치 김혜경 과 (☎ 02-3484-3020)

LOC. 귀하께서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서울시 제외 조사종료)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경기
- ⑨ 강원
- ⑩ 충북
- ⑪ 충남(세종)
- ⑫ 전북
- ⑬ 전남
- ⑭ 경북
- ⑮ 경남
- ⑯ 제주

PART SQ	응답자 특성
----------------	---------------

SQ1 귀하는 서울시 어느 구에 거주하십니까?

- ① 종로구
- ② 중구
- ③ 용산구
- ④ 성동구
- ⑤ 광진구
- ⑥ 동대문구
- ⑦ 중랑구
- ⑧ 성북구
- ⑨ 강북구
- ⑩ 도봉구
- ⑪ 노원구
- ⑫ 은평구
- ⑬ 서대문구
- ⑭ 마포구
- ⑮ 양천구
- ⑯ 강서구
- ⑰ 구로구
- ⑱ 금천구
- ⑲ 영등포구
- ⑳ 동작구
- ㉑ 관악구
- ㉒ 서초구
- ㉓ 강남구
- ㉔ 송파구
- ㉕ 강동구

SQ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성
- ② 여성

SQ3 귀하의 연령대는 만 나이로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대 이하 (조사종료)
- ② 20대
- ③ 30대
- ④ 40대
- ⑤ 50대
- ⑥ 60대 이상

PART 1 기후변화 인식에 관한 사항

※ 설문에 응답하시기 전에 기후변화의 전망에 대해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전망, 국제사회의 노력

지구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시기(1850-1900년)에 비해 약 1℃ 정도 상승하였고, 한반도에서는 공식적인 관측이 시작된 이래 지난 100년간 연평균기온이 약 1.4℃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기온의 상승과 함께 서울에서도 폭염 등 이상기온의 빈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기에 비해 1.5℃ 이상 상승하게 되면 기후변화의 속도가 더 이상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폭염 뿐 아니라 슈퍼태풍과 같은 기상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을 억제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는 195개 참가국 만장일치로 '산업화 이전에 비해 향후 지구평균기온이 상승하는 정도를 2℃ 이내(가능한 1.5℃)로 억제'하자는 기후변화대응 목표 합의문(파리협정)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지구평균기온은 2040년에 이미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1.5℃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2100년에 현재보다 최대 4℃ 정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평균기온이 1℃ 상승할 때 조기사망률이 3% 증가하고, 폭염발생 시에는 조기사망률이 8.7%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기후변화는 열사병 등 온열질환, 말라리아 등 전염성 질환, 농작물 피해, 근로의욕 상실 등 노동 생산성 감소, 생태계 서식지 파괴, 자연 재해, 대기오염 악화(미세먼지, 오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PART 2

기후변화 정책수요에 관한 사항

문4

서울시에서는 시민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 경우 아래 사업들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기후변화 대응사업	문4-1 인지여부	(각 기후변화 대응사업 중 인지한 경우에만 응답) 문4-2 참여여부	참여방법
1) 원전하나 줄이기	① 알고있다 ② 모른다	① 참여 ② 미참여	(설명문 삭제)
2) 태양의 도시, 서울	① 알고있다 ② 모른다	① 참여 ② 미참여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 등
3) 에코마일리지	① 알고있다 ② 모른다	① 참여 ② 미참여	에코마일리지 가입 또는 인센티브 수령 등
4) 에너지자립마을	① 알고있다 ② 모른다	① 참여 ② 미참여	에너지자립마을 활동 또는 방문 등
5)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① 알고있다 ② 모른다	① 참여 ② 미참여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재활용 등
6) 전기차, 수소차 구매 지원	① 알고있다 ② 모른다	① 참여 ② 미참여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구매 등
7) 녹색교통진흥지역, 승용차요일제, 자율2부제 등 교통수요관리 정책	① 알고있다 ② 모른다	① 참여 ② 미참여	녹색교통진흥지역(4대문안) 자동차운행제한 참여(대중교통이용 등), 승용차요일제 또는 자율2부제 참여 등
9)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① 알고있다 ② 모른다	① 참여 ② 미참여	에너지복지시민기금 참여(기부, 시민활동) 등

문9

기후변화 정책 목표에 따른 기대효과와 비용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때 귀하는 어떤 안을 서울시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는 동일한 목표를 위해 필요한 감축 노력을 지속한다고 가정하며 서울시와 시민의 비용 지출을 통해 기후변화 목표는 달성가능하다고 가정합니다. 참고로 지난 10년간 국내에서의 기상재해 관련 피해액은 연평균 3천5백억원이었으며, 평균기온이 4도 상승할 때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피해비용은 연간 7조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 ① 목표 1 (현재 수준 유지)
- ② 목표 2 (중간 목표)
- ③ 목표 3 (탄소중립: 타지역에서의 감축사업 진행을 통한 상쇄 포함)
- ④ 목표 4 (탄소중립: 서울 자체 감축만으로 달성)

	2050년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2005년 대비)	효과와 편익			정책 비용	
		초미세먼지 감축률 (현재 대비)	평균기온 상승 (산업화이전 대비)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비용 절감액	서울시 예산 소요	가구당 에너지비용 상승(전기료, 가스료 등)
①	8%	5~10%	4도	0원	현행 유지	현행 유지
②	80%	60~70%	2도	연간 5조원	연평균 1천억원	월평균 6천원
③	100% (타지역에서의 감축사업 진행을 통한 상쇄분 20% 포함)	60~70%	1.5도	연간 6조원	연평균 2~3천억원	월평균 6천원
④	100% (서울 자체 감축 100%)	80% 이상	1.5도	연간 6조원	연평균 4천억원	월평균 1만 2천원

문10

정부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려 한다면 각 정책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정책	정책 설명	동의여부
1) 탄소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건물 포함)에게 배출량에 근거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	① 동의함 ② 동의하지 않음
2) 배출권거래제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건물 포함)에게 배출총량의 한도를 정해주고 부족하거나 남는 것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함	① 동의함 ② 동의하지 않음
3) 탄소예산	예산을 수립하는 것처럼 연도별로 공공기관(대형 민간기업 포함 가능)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탄소예산)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 등 불이익 부과	① 동의함 ② 동의하지 않음
4) 에너지요금 인상	에너지소비가 유발하는 환경비용(미세먼지, 온실가스)을 반영해 전기료 등 에너지 요금 인상	① 동의함 ② 동의하지 않음
5) 자동차 운행제한 확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 확대(배출량에 근거한 자동차 통행료 부과)	① 동의함 ② 동의하지 않음
6) 배출량에 근거한 자동차 통행료 부과	현재 통행여부에만 기초해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혼잡통행료 개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에 기초한 차등 통행료 부과	① 동의함 ② 동의하지 않음
7) 온실가스 상쇄사업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과 감축 비용이 낮은 외부 지역(국내 다른 지자체나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해당 감축량을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	① 동의함 ② 동의하지 않음

문11

서울시가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그로 인한 기후변화
- ②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등)과 그로 인한 건강 영향
- ③ 에너지 안보 (에너지원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정세에 따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④ 에너지 분권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서울시 혹은 시민의 관리 권한 확대)
- ⑤ 기타 (구체적으로:)

문12 서울시가 에너지 관리정책 수립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에너지 효율 개선(건물 단열 개선, 가전제품 등 에너지이용기기 효율 개선 등)
- ②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태양광, 연료전지 등)
- ③ 시민참여를 통한 에너지 절약(에코마일리지, 교육 및 홍보 등)
- ④ 기타 (구체적으로:)

문13 현재 서울시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 및 실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시장 등 정부 지도자의 관심과 리더십
- ② 정부 담당부처의 권한과 의무 확대
- ③ 전담인력과 예산 확보
- ④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변화(정치권, 언론, 이해당사자, 시민의 관심과 태도)
- ⑤ 시민이나 민간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력 기구(거버넌스 조직) 활성화
- ⑥ 기타 (구체적으로:)

문14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울시 기후변화 정책 민관협력형 기구(거버넌스 조직)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14-1 이러한 거버넌스 조직의 주요 운영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의제 발굴
- ②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 ③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집행과정, 성과 등)
- ④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예산 및 기금(기후변화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지역 주요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및 네트워크 구축(참여 민주주의 실현)
- ⑥ 기타 (구체적으로:)

PART 3 기후변화 정책 재원에 관한 사항

문15 서울시가 기후변화 정책 수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면, 어떤 식으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상에게 비용 부과(탄소세, 배출권거래제도, 과태료, 배출부과금 등 활용)
- ② 현재의 제도 내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일반 예산 활용(시민의 세금)
- ③ 기후변화기금과 같은 특별기금 확대(공적 기금 활용 포함)
- ④ 기후변화 관련 산업, 기후금융 활성화를 통한 수익금, 배출권 거래제도 수수료 등 민간자본 활용
- ⑤ 배출사업자와 시민의 기부금 등을 통한 자금 조성
- ⑥ 기타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폭염과 폭우 등 기후변화가 건강과 재산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건강영향이 개선되고 미세먼지 역시 배출이 줄어듭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비용이 줄어듭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 비용은 지방세의 형태로 시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향후 10년간 추진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귀덕에서는 10년간 동일한 액수의 지방세를 매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책	정책의 결과				
	평균기온 상승 (산업화이전 대비)	기후변화 건강영향	미세먼지 배출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비용	
A	현상유지	4도	현 상태 유지	현 상태 유지	연간 7조원
B	탄소중립: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행으로 온실가스 순배출량(배출량-흡수 량) 0	1.5도	조기사망률 8% 감소	80%이상 감소	연간 1조원

DQ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대학·대학원생 | ② 사무직(회사원, 공무원) |
| ③ 전문직(의사, 변호사, 연구원 등) | ④ 판매 및 생산직 |
| ⑤ 서비스직 | ⑥ 자영업(상점, 식당, 기업 등 사업체 운영) |
| ⑦ 전업주부 | ⑧ 기타 () |

DQ2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 ② 고등학교 졸업 |
| ③ 대학교 졸업(재학 포함) | ④ 대학원 재학 이상 |

DQ3 귀택에 살고 있는 가구원 수는 본인을 포함해서 모두 몇 명입니까?

()명

DQ4 귀택에 살고 있는 가구원 중 만5세 이하 어린이와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각각 몇 명입니까?(1,2번 중복응답 가능)

- | | |
|------------------|------|
| ① 만 5세 이하 어린이 : | ()명 |
| ② 만 65세 이상 어르신 : | ()명 |
| ③ 해당 없음 | |

DQ5 귀택에 살고 있는 가구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있습니까?

- | | |
|------|-----------|
| ① 없음 | ② 있음 ()명 |
|------|-----------|

DQ6

귀택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가구원의 수입을 합산해 주십시오. 정부나 민간기관에서 받는 연금이나 공공급여, 가족이나 친척에게서 받는 지원금을 모두 포함해 주십시오.

총 () 만원

귀택의 순자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모든 가구원의 순자산을 합산해 주십시오.

(순자산이란? 은행예금, 채권 등을 포함한 동산, 전월세 보증금, 부동산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

총 () 만원

DQ8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귀택의 생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① 고소득층

② 중산층

③ 저소득층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부록 2_산업경제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 (투입산출표의 구조) 경제적 파급효과를 위해 활용되는 투입산출표는 크게 내생부문과 외생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생부문은 산업간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흐름을, 외생부문은 부가가치와 최종수요를 나타냄. 투입산출표의 세로열은 특정 산업의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연관산업의 생산물의 양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며, 가로행은 특정 산업의 생산물이 각 부문 산출에 기여한 양을 나타냄

■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생산유발 효과 추정) 투입산출표의 열이 나타내는 기술구조를 이용하여 j부문 재화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i부문 중간재의 투입량 투입계수로 나타낼 수 있음(식 1 참조). 특정 산업 재화에 대한 최종수요가 증가하면 이에 따라 해당 최종수요 만큼의 해당 산업에 대한 직접적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며 연쇄적으로 해당 산업의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연관산업에서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함. 이를 수식으로 살펴보면 최종수요 X가 직접적 생산유발효과에 해당하며 최종수요 X에 투입계수를 거듭 곱하여 간접적 파급효과를 산정할 수 있음(식 2 참조)

$$\text{투입계수} : A_{ij} = \frac{x_{ij}}{x_j} \quad (\text{식 1})$$

$$X + AX + A^2X + A^3X + \dots + A^nX = (I + A + A^2 + A^3 + \dots + A^n)X \quad (\text{식 2})$$

■ (생산유발계수의 도출)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 변화로 인해 단위 투자액 당 발생하는 관련 산업의 직간접적 파급효과의 승수를 의미하며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이용하여 생산유발계수를 도출할 수 있음(식 3 참조). 최종수요액에 생산유발계수를 곱하면 해당 산업에서의 생산유발액을 산정할 수 있음

$$I + A + A^2 + A^3 + \dots + A^n = (I - A)^{-1} \quad (\text{식 3})$$

■ (부가가치 유발효과 추정)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율과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가가치율은 j부문 총 투입액에서 j부

문 부가가치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냄(식 4 참조). 부가가치율에 생산유발계수를 곱하면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 최종수요의 변화분을 곱하면 부가가치 유발액을 추정할 수 있음

$$\text{부가가치율} : A_j^v = \frac{v_j}{x_j} \quad (\text{식 4})$$

■ (고용유발 효과 추정) 고용유발 효과는 해당 산업의 고용계수¹⁵⁾와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 고용계수는 j부문 산출액(10억원당)에서 j부문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냄(식 5참조). 고용계수에 생산유발계수를 곱하면 고용 유발계수를 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 최종수요의 변화분을 곱하면 고용유발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

$$\text{고용 계수} : l_i^e = \frac{l_i^c}{x_i} \quad (\text{식 5})$$

■ 산업연관표는 1960년 최초로 작성된 이래 한국은행은 기준년표(실측표)와 비교년표(연장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작성된 실측표는 2015년 기준임

- 기준년표는 5년마다(끝자리가 0과 5인 연도) 작성되며 비교년표는 기준년표를 근거로 간접추정의 방식으로 2006년부터 매해 작성하고 있음
- 산업연관표 산업분류는 통합소분류 161부문, 통합중분류 83부문, 통합대분류 34부문으로 분류되어 제공됨
-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투입산출표에는 각종 유발계수(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등)가 함께 제공됨

15) 노동계수에는 고용계수와 취업계수가 존재하며 전자는 임금근로자만을 포함하고 후자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를 모두 포함함. 여기서는 고용계수를 중심으로 노동유발효과를 살펴보고 있음

	2000	2005	2010	2012	OECD(2010)
농림수산물	1,608	1,730	1,861	1,817	1,684
광산품	1,492	1,647	1,714	1,669	1,526
공산품 ¹⁾	2,022	2,092	2,095	2,078	1,769
소비재 ²⁾	2,122	2,172	2,144	2,105	1,832
기초소재제품 ³⁾	1,923	1,972	1,994	2,013	1,718
조립가공제품 ⁴⁾	2,046	2,161	2,172	2,133	1,729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⁵⁾	1,478	1,498	1,709	1,691	1,684
건설 ⁶⁾	1,993	2,006	2,250	2,223	1,818
서비스 ⁷⁾	1,502	1,563	1,664	1,663	1,529
도소매 및 운송 ⁸⁾	1,462	1,555	1,687	1,708	1,629
생산자서비스 ⁹⁾	1,433	1,525	1,622	1,622	1,530
사회서비스 ¹⁰⁾	1,412	1,415	1,513	1,509	1,389
소비자서비스 ¹¹⁾	1,852	1,886	1,973	1,951	1,437
평 균 ¹²⁾	1,745	1,811	1,882	1,869	1,642

[그림 부록 2-1] 품목별 생산유발계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2014)

주: 통합대분류(30부문)의 생산유발계수를 단순평균

- 위의 생산유발계수의 추이에 따르면 2000년 우리나라의 산업에 1조 원을 투자했을 경우 1.745배인 1조 7,45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2012년의 경우 동일한 1조 원을 투자했을 경우 1.869배인 1조 8,69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서울시와 같은 특정 지역단위에서의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산업간 연계관계가 표현된 지역산업연관표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에서의 파급효과는 물론 그 외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은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지역의 생산기술구조와 지역간 산업간 의존관계를 파악할 수 있음

- 가장 최근 작성된 지역산업연관표는 2013년 기준이며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에 대한 지역간, 산업간 연계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지역산업분석에서 생산유발계수는 특정지역에 일정규모의 생산이 발생할 경우 해당지역과 이외 지역의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를 의미함. 아래 표의 사례를 예시로 살펴보면 k지역 농림수산물 산업에 1조 원이 투자될 경우 전국적인 생산유발 효과는 1.9945배인 1조 9,945억 원이며 이 가운데 k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1.7891배인 1조 7,891억 원임(표 참조)

		k지역			r지역			s지역			행합계
		농림수 산물	공산물	서비스	농림수 산물	공산물	서비스	농림수 산물	공산물	서비스	
k지역	농림수산물	1.1489	0.0774	0.1118	0.0234	0.0359	0.0290	0.0494	0.0833	0.0871	1.6461
	공산물	0.2759	1.3767	0.2089	0.1791	0.2221	0.1990	0.2656	0.3249	0.2463	3.2984
	서비스	0.3283	0.3056	1.2484	0.1827	0.2563	0.2057	0.1764	0.1785	0.1442	3.0260
r지역	농림수산물	0.0259	0.0671	0.0660	1.2669	0.2244	0.2580	0.1819	0.1627	0.1259	2.3787
	공산물	0.0589	0.2101	0.1076	0.2415	1.2402	0.2279	0.1185	0.1915	0.1687	2.5648
	서비스	0.0144	0.0343	0.0390	0.1691	0.1465	1.2213	0.0379	0.0414	0.0449	1.7489
s지역	농림수산물	0.0056	0.0162	0.0132	0.0048	0.0105	0.0080	1.1193	0.0599	0.0683	1.3059
	공산물	0.0428	0.1453	0.0837	0.0450	0.1109	0.0899	0.3187	1.3366	0.2466	2.4194
	서비스	0.0938	0.2514	0.2334	0.0727	0.1482	0.1094	0.3861	0.2600	1.3598	2.9149
열합계		1.9945	2.4841	2.1120	2.1852	2.3948	2.3482	2.6538	2.6386	2.4918	21.3031

[그림 부록 2-2] 지역간 생산유발계수표

자료: 한국은행(2014)



[표 부록 2-1] 에너지부문 사업비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20~2024	2025~2029	2030~2034	2035~2040	계
에너지다소비건물 에너지효율화	1,820,000	1,260,000	1,360,000	1,350,000	5,790,000
상업건물 BRP	15,000,000	12,000,000	15,000,000	18,000,000	60,000,000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교육시설	15,636	23,784	58,826	162,541	260,787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업무시설	5,696	8,663	21,425	59,192	94,976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의료시설	7,268	11,054	27,340	75,542	121,204
사회복지 시설 BRP	125,000	50,000	62,500	75,000	312,500
주택 BRP	811,568	649,254	811,568	973,881	3,246,271
공공임대주택 BRP	17,842,500	14,274,000	17,842,500	21,411,000	71,370,000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392,500	324,500	432,500	507,000	1,656,500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11,654,908	9,323,926	11,654,908	13,985,890	46,619,632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2,904,011	2,323,209	2,904,011	3,484,814	11,616,046
친환경 보일러	100,524	130,824	273,666	616,192	1,121,205
자원	27,840	45,431	92,431	201,171	366,872
민간부문 LED 보급	296,567	105,513	77,000	92,400	571,480
에코 마일리지	35,527	30,093	39,936	51,560	157,116
태양광	1,166,492	553,168	943,923	1,657,006	4,320,588
태양열	0	16,229	35,000	35,000	86,229
소형풍력발전	206	394	1,252	4,694	6,546
소수력 발전	5,866	2,933	3,667	4,400	16,866
발전용 연료전지	0	430,920	359,100	179,550	969,570
건물형 연료전지	71,820	215,460	430,920	502,740	1,220,940
건물형 열병합	0	45,980	22,990	45,980	114,950
바이오(하수슬러지)	0	11,800	11,800	17,700	41,300
잉여열 연계 지역난방 이용	5,500	0	0	0	5,500
상수열 이용	41,407	209,058	311,716	355,730	917,911
하수열	0	23,476	29,027	31,074	83,577
지열	0	23,270	28,874	32,737	84,882
폐기물	0	0	0	0	0
승용차마일리지제 참여대수	10,566	1,557	1,001	667	13,792
나눔카 보급대수	100,000	75,000	125,000	50,000	350,000
도시철도 연장	3,866,667	2,107,333	0	0	5,974,000
중앙버스 전용차로 연장	209,773	45,182	0	0	254,955
보도율	289,533	231,627	289,533	347,440	1,158,133
자전거 도로 연장	282,642	282,642	262,453	242,264	1,070,000
공공자전거 이용실적	19,500	19,200	28,500	39,800	107,000
공유 개인교통수단 운영대수	43,940	9,464	7,098	3,380	63,882
전기차 점유율	3,561,910	4,069,022	7,739,987	14,506,947	29,877,867
수소차 점유율	2,661,210	3,937,992	8,796,076	17,371,330	32,766,609
친환경 시내버스 비율	552,336	856,610	1,254,703	700,928	3,364,577
계	63,928,913	53,728,568	71,341,230	97,175,550	286,174,262

자료: 서울시(2020)

[표 부록 2-2] 폐기물부문 사업비 예산

단위: 백만 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시도 성과관리대상 공공부문 사업장의 생산성 효율화 증대사업	0	0	0	50	50	100
자원순환 신기술 개발 및 자금지원	0	0	0	500	500	1,000
재활용 선도도시 구축	6,188	6,188	6,333	6,188	6,188	31,085
재활용시장 안정화	0	0	50	50	50	150
민간부문 1회용품 사용규제	0	10	10	10	10	40
음식물 폐기물 무게종량제 확산	3,481	0	3,700	4,200	0	11,381
공공기관 서울시 및 투자 출연기관 대형감량기 설치지원	185	185	185	185	185	925
시민 기업 실천을 통한 서울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	0	5,468	0	0	0	5,468
서울 재활용플라자 자원순환공간으로 조성	1,270	1,270	1,270	1,270	1,270	6,350
생활자원회수센터를 통한 관리기반 자립	0	0	0	0	68,419	68,419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	0	0	0	0	13,600	13,600
자치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유도책 도입	0	0	15	0	0	15
재활용 배출 수거체계 개선	1,840	1,840	1,840	1,840	1,840	9,200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1,923	1,923	1,923	1,923	1,923	9,615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체계 개편 및 환경여건 개선지원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미래지향적인 서울형 청소기반시설 구축	100	100	100	100	100	500
자원순환 정책기반 마련 및 제도개선	0	160	200	200	200	760
자원순환 물질흐름에 기초한 과학적 관리 추진	100	100	100	100	100	500
계	16,287	18,444	16,926	17,816	95,635	165,108

자료: 서울시(2020)